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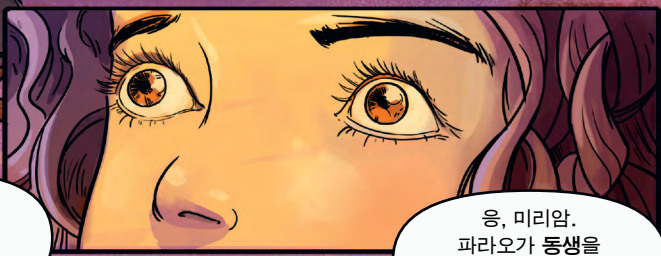
탈출기 1-2장

요셉이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나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호와의 섬기는 히브리인들을 싫어했어요.

보아라!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대하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겠다!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모두 죽여라!

그런데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엄마, 왜 우리 동생을 숨겨요?

응, 미리암. 파라오가 동생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야 하거든.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요게벳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었어요 ...

파피루스 상자 안에
아기를 놓고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뒹가겠다.

전 누가 동생을
발견하는지 여기서
지켜볼게요. 동생을 보면
가여워하겠죠?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에 왔어요 ...

저게 뭐지?
저걸 좀
가져오너라.

히브리인의
아이잖아.

제가
히브리 여자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렇게
하거라!

요게벳의 아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몇 년 동안 요게벳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요게벳은 아이가 여호와의 사랑을 하도록
가르쳤지요.

나중에 요게벳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이 아이를
모세라고 불러야겠다.
물에서 건져 냈으니까.

모세는 이집트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친족인 히브리인들이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하루는 어떤 이집트인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어요.

모세는 그 히브리인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집트인을 죽였어요.

파라오는 모세가 한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지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시간이 흘러 모세는 미디안에서 십보라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서 히브리인들을 돕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위해 어떻게 했나요?

힌트: 탈출기 2:4, 7; 요한 첫째 3:17, 18.

파라오가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싫어한 것은 왜 잘못된 행동일까요?

힌트: 사도행전 10:34, 35.

우리는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힌트: 사무엘 첫째 16:7.